

# 셰익스피어에 도전한 감독들

올리비에, 웰스, 타르코프스키

송희복 | 영화평론가

희극과 비극에는 서로 물질적인 차이가 있다. 아무리 희극이 지적이고, 풍자와 비판정신을 통해 민중주의 세계관을 드러낸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희극은 만인의 허파를 간지럽게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한정적이고 지방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비극은 만인의 가슴을 적셔주기가 용이하다는 점으로 인해 보편적이고 세계적이다.

비극은 시공을 초월해 우리에게 심원한 감동을 준다. 단적으로 말해 비극은 예술의 정화다. 그것은 시·고전음악·발레·조각 등등의 모든 예술 중에서도 으뜸으로 인정된다. 특히, 옛 그리스 비극과 셰익스피어 비극은 예술사에 있어서 전아의 쌍벽이 아닐 수 없다. 전아란, 고전적인 품격의 단아한 매무새를 이르는 말이다.

**셰익스피어의 탁월한 해석가, 올리비에와 웰스**  
셰익스피어는 20세기에 이르러 무대 미학으로만 충족될 수 없었다. 이것은 영화의 시대에 영상의 이미지로 빚어지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영화의 스크린 위에 무수히 그려졌다. 물론 《리처드 3세》나 《헨리 5세》 등과 같은 고전 사극과, 죽음으로 승화된 숙명적 연애담으로서 아직도 전세계적인 애호를 받는 《로미오와 줄리엣》도 무수히 영화화됐다.

그를 영화적인 언어와 문법으로 해석한 대표적인 시네아스트로는 로렌스 올리비에, 오슨 웰스, 프랑코 제피렐리, 데릭 저먼, 로만 폴란스키, 구로사와 아키라, 케네스 브래너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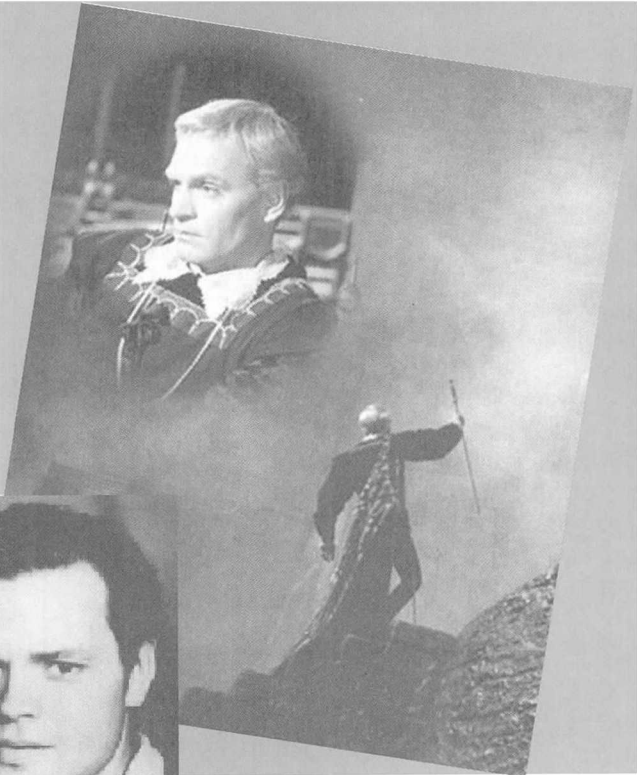
로렌스 올리비에의 영국의 국교인 유교나 가문의 성직자 아들로 태어났다. 타고난 연극인으로 승승장구하던 그가 브로드웨이와 할리우드에



로렌스 올리비에의 충실한 고종의 관점에서 셰익스피어극을 재현했다.



오슨 웰스는 스타일리스트로서 셰익스피어를 재해석했다.



올리비에의 《햄릿》은 지금까지 영화화된 《햄릿》 중 가장 전야한 불멸의 명작이다.

입성한 것이 생의 전환점이었다. 처음에는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크리스티나 여왕》에서 중도에 포기한 일이 있었고, 《폭풍의 언덕》을 촬영할 때는 윌리엄 와일러 감독으로부터 연극적인 연기 스타일을 버릴 것을 강요받았다. 그 후 그는 비비안 리와 결혼했고, 불세출의 '액팅 액터', 즉 연기와 배우로서 각광을 받음에 받게 됐다.

감독으로 그의 첫 작품에 해당하는 《헨리 5세》(1945)는 15세기의 조형·건축·의상 등을 고증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 고전 사극을 충실히 재현했다는 평판을 받았다. 올리비에의 《햄릿》(1948)은 셰익스피어 영화에 관한 한 전야한 불멸의 명화다. 그의 자서전 《어느 배우의 고백》에 따르면, 《헨리 5세》가 화려한 운문의 치장을 위해 색채가 사용됐다면, 《햄릿》은 깊은 초점의, 한결 장대하고 보다 시적인 영상의 이미지를 빚어내기 위해 흑백이 선택됐다.

### 타르코프스키의 《햄릿》 집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오슨 웰스도 셰익스피어를 영화적으로 해석하는 데 식견과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의 《맥베드》는 괴이한 세트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미장센의 표현적인 장치와 효과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모든 배우들

이 오리지널 스코틀랜드 억양으로 대사했던 것도 화제거리였다. 그의 《오셀로》는 연극적인 평면성을 최대한 극복했다. 연극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거울에 비친 그림자는 등장인물의 심리적 환경을 반영한다. 이 영화에서 영상적인 표현 효과를 위해 대조적인 색조가 잘 이용되고 있다. 그가 끊임없이 탐구해마지 않았던 미장센의 한 장치로서의 '딥 포커스'가 여기에서도 주요한 기법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는 한 시대를 풍미한 스타일리스트였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는 죽는 순간에까지 《햄릿》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부재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증오에 사로잡힌 타르코프스키는 자기 희생과 구원의 욕망이 혼재된 착잡한 심리상태의 햄릿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의 《햄릿》 프로젝트는 때 이른 죽음에 의해 좌절됐다. 영화사 최고의 영상시인이 꿈꾸었던 햄릿. 그는 순교와 자기 희생의 이미지로써 광기와 광태로 점철된 햄릿이 걸었던 생의 곡절을 재해석하려 했다. 타르코프스키의 《햄릿》은 영화사의 가장 아쉬운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